

# 中唐 于武陵의 시가 고찰\*

배다니엘\*\*

## 目 录

- I. 서 론
- II. 于武陵 시가의 내용 분석
  - 1. 현실에 대한 자신의 소회 표현
  - 2. 순전한 교유관계의 추구
  - 3. 비감 어린 산수 경물의 서사
- III. 결어

## I. 서 론

于武陵은 中唐代 시인으로 생졸년이 불명하나 그에 대한 각종 기록을 참조해보면 대략 中唐 武宗(841-846)에서 宣宗(847-859) 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인물이다.<sup>1)</sup> 그는 젊었을 때 벼슬을 구하기 위해 京洛 간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변새를 유랑하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은일 풍조를 지향하면서 산수의 정경을 그린 청아한 풍격의 작품을 쓰거나 여러 문인들과 교분을 나

\* 이 논문은 2015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학과(중국지역 전공) 교수

1) 于武陵의 生平과 事跡에 대하여는 『唐詩紀事』 卷五八과 卷六三, 『郡齋讀書志』 卷四, 『唐才子傳』 卷八 등에 그 기록이 보이는데 “武陵은 이름이 鄰이고 杜曲人이다. 大中년간에 進士에 응시했으나 실패한 후 商洛과 巴蜀 간을 왕래하거나 은거하면서 산승, 은자, 도사 등과 교류하였다.”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가 進士에 응시했던 ‘大中’이 唐 宣宗의 연호이며 847—860년 사이임을 감안하여 于武陵이 中唐代人임을 파악할 수 있겠다.

누며 교유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全唐詩』에 48題 49首의 시가 남아 있는데 개성적인 서사를 펼친 작으로 인해 자신의 고유한 시세계를 추구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하여 대략적인 행적을 기술한 『唐才子傳』의 기록을 참고해 보자.

于武陵은 이름이 鄴이며 字는 行이고 杜曲人이다. 大中년간에 일찍이 進士에 응시했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책과 거문고로 소일하고 商洛과 巴蜀 간을 왕래하였다. 때로는 접복에 의지하여 은거지를 택하기도 하였고, 자신만 홀로 깨어있다는 의식을 갖기도 하였다. 그는 은거지에서 묵묵히 지내면서 영달함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대의 유명인사들과 교류하는 일도 적었다. 일찍이 남쪽으로는 瀟湘에 이르렀고 물가나 방초를 좋아했으니 이는 일찍이 屈原의 옛 처소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였다. 그가 골라서 간 은거지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돌아와 崇山 남쪽에 있는 별장에서 만년을 보냈다. 그의 시는 오언이 많으며 그 정취는 표일하면서도 감정이 다양했으며 매번 작품을 마감할 때마다 한 가지 뜻을 담아내어 당시에 이름을 날렸다. 시집 한 권에 있어 현전한다.(武陵, 名鄴, 以字行, 杜曲人也. 大中時, 嘗舉進士, 不稱意, 攜書與琴, 往來商洛、巴蜀間, 或隱于卜中, 存獨醒之意. 避地黑嘿, 語不及榮貴, 少與時輩交游. 嘗南來至瀟湘, 愛汀洲芳草, 況是古騷人舊國, 風景不殊, 欲卜居未果. 歸老嵩陽別墅. 詩多五言, 興趣飄逸多感, 每終篇一意, 策名當時, 集一卷, 今傳.)<sup>2)</sup>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于武陵이 과거에 실패한 후 산수 간에서 은거하거나 여행하며 은자들과 교유하거나 시를 지으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가는 산수와 자연을 찾아 소요하면서 쓴 청아한 풍격의 작품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관직에 오르지 않았고(嘗舉進士, 不稱意)” 屈原처럼 “자신만의 의기가 있었으며(存獨醒之意)” “세상의 영달을 도모하거나 세속의 유명인사와 적극적인 교류도 시도하지 않았기에(語不及榮貴, 少與時輩交游)” 시가의 내용과 폭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하는 추측도 해보게 된다.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의식을

2) 辛文房, 『唐才子傳』 卷八 「于武陵」

심도 있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于武陵은 인지도 면이나 작품의 성취 면에 있어서 특별히 언급할만한 인물은 아니나 中唐代 賈島 일파와 같은 시기를 살면서 상호 시문의 영향관계를 수립한 시인이라는 점, 산수자연에 대한 담백한 시선을 소유한 채 淡寂한 풍격의 시가를 창작함으로써 中唐 자연시 창작에 있어 하나의 축을 이루었던 인물이라는 점 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중요도를 찾을 수 있는 인물이다. 현재까지 于武陵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의 인지도만큼이나 소략한 상황이다. 역대 문헌이나 각종 문학사서에서는 于武陵의 시에 대해 “시풍이 ‘清奇雅正’한 풍격을 띠었다”<sup>3)</sup>, “시의 기격이 굳세고 성운이 촉급하며 시어의 뜻이 시원하게 드러나 元和시기에 뛰어난 시인으로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평을 가하였거나<sup>4)</sup> “오언율시에 뛰어났고 행유시나 송별기증시가 많다”<sup>5)</sup>라는 기술을 하고 있다. 수년 전 張固也가 논문을 통해 于武陵의 생평과 교유관계, 행적 등에 대한 고증을 시도한 바 있지만<sup>6)</sup> 생평과 작품상 다분히 혼동을 느끼기에 충분한 中唐代 于武陵과 晚唐代 于鄴의 동일인 여부도 명확하지 구분되지 않았으며<sup>7)</sup>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역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

- 3) 張爲의 『詩人主客圖』에는 “清奇雅正主: 李益 …… 及門八人, 僧良又、潘誠、于武陵、詹雄、及淮、僧志定、兪鳧、朱慶餘.” 등의 기록이 있어 于武陵이 ‘清奇雅正’을 위주로 시가창작을 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4) 許學夷, 『詩源辨體』: “『于武陵集』五言律之外, 惟絕句數篇而已. 其詩氣格迥緊, 故爲矯激而聲韻急促, 語意快露, 實多出于元和, 亦晚唐一家.”
- 5)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 5.) 제2672쪽: “于武陵, … 曾漫游巴蜀、商洛、吳楚等地, 後歸老嵩陽別墅. 工五言詩, 多羈旅行役、送別寄贈之作.”
- 6) 于武陵에 대한 전문 연구로는 張固也가 「中晚唐詩人于武陵考」(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제48권 5기, 2008. 9.)에서 생평과 교유관계, 행적 등에 대하여 고증을 시도한 것이 있다. 張固也는 이 논문을 통해 于武陵과 賈島, 賈區(無可) 등과의 교유관계, 于武陵이 大中년간에 進士에 응시했다는 기록에 대한 반론, 그가 약 30년 동안 남북을 행유한 행적 등에 대한 고증을 가하고 있어 좋은 자료가 되지만 于武陵 시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나 분석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 7) 中唐의 于武陵과 晚唐의 于鄴은 『全唐詩』에 각기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唐才子傳』, 『唐音癸籤』과 같은 역대 자료에서는 于武陵과 于鄴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는데 陳伯海의 『唐詩彙評』에서는 “『全唐詩』于鄴、于武陵名下各編詩一卷, 其中十八首詩重出互見. 或云武陵名鄴, 然此

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中唐의 특성을 대변하고 있는 시인들 중에서도 연구가 소략한 于武陵과 그의 시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于武陵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sup>8)</sup> 본 고찰을 통해 中唐의 시속을 반영한 시인과 시가 창작 면모를 살필 수 있으며 그의 작품이 지닌 특색을 도출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于武陵 개인 시가가 지닌 가치의 고찰 뿐 아니라 唐代 시가 창작의 흐름을 살피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II. 于武陵 시가의 내용 분석

于武陵의 시가창작은 그의 생평을 3분하여 보는 것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의 생애는 대략 京洛間을 다니면서 進士에 응시한 시기, 邊塞에서 軍幕에 들어가 벼슬을 구하던 시기, 巴蜀·荊湘·吳越 등지를 다니면서 산수에 일신을 기탁한 시기 등으로 3분된다. 앞 두 시기에는 자신의 소회를 밝힌 시가를 주로 썼고 巴蜀·荊湘·吳越 등지를 유람하던 시기에는 산수자연을 노래한 시가를 특히 많이 창작하였다. 『全唐詩』 卷595에 총 48제 49수의 작품이 남아 있는 于武陵의 시를 분석해보면 자신의 개인적 소회나 의식을 읊은 瑩희시 12수, 자연 정경을 묘사한 寫景詩 7수, 군막과 남방을 유람하면서 쓴 行游詩 13수, 친우와의 교분을 노래한 交遊詩 15수, 영물을 보며 哲理를 투영한 詠物

事未見北宋前記載，唐末有于鄴，恐別是一人。”이라 하여 두 사람을 각기 다른 인물로 보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동일인지의 여부에 따라 于武陵은 中唐代人이 되거나 晚唐代人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고증은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 8) 李新은 「近十年中唐詩歌流派研究綜述」, (廊坊師範學院學報, 2006. 6. 제2기)에서 근래에 이루어진 中唐 詩歌 유파의 연구를 분석한 바 있는데, 주로 大歷體, 元和體, 韓孟詩派, 元白詩派, 賈姚體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개별시인으로는 劉言史, 庄南傑, 李賀 등을 언급하고 있다. 于武陵에 대한 학계의 주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詩 2수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현실에 대한 소회를 표출하거나 교유관계에 집중하는 면모를 지녔으며 산수를 유람하면서 자연을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면모가 느껴진다 하겠다. 于武陵의 시가를 살펴보는 것은 中唐代 문인들의 교유관계나 中唐 산수자연시의 풍격 구명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제 于武陵의 시가를 현실에 대해 소회를 표출한 작품, 교유관계를 노래한 작품, 산수 경물을 감상하며 서사한 작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현실에 대한 자신의 소회 표출

于武陵이 현실에 대해 자신의 소회를 펼친 작품은 그가 京洛間을 다니면서 進士에 응시한 시절에 쓴 「東門路」를 비롯하여 「浮掠京華烟雲」, 「過侯王故第」, 「長信宮」 2수, 「白櫻樹」 2수, 「路傍草」, 「賣松人」 등의 작품을 거론할 수 있다.<sup>9)</sup> 또한 邊塞에서 軍幕에 들어가 벼슬을 구하던 시기에 쓴 「書情」, 「秋夜達蕭關」, 「書懷」, 「歲暮還家」 등의 작품 역시 于武陵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와 더불어 巴蜀·荊湘·吳越 등지를 다니면서 객려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역시 于武陵의 소회를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일생동안 野人으로서 살면서 세상에 대한 회한과 비애감이 종래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다. 산수 경물에 대한 미감을 추구하고 자연과 벗하며 남북을 주유했지만 자신의 신세와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 비애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于武陵이 현실에 대해 자신의 소회

9) 于武陵은 求仕의 길이 원활치 않았던 이 시기에 많은 실의와 좌절감을 맞본 것 같다. 자신의 시 「下第不勝其憤題路左佛廟」(과거에서 낙방하여 분을 이기지 못해 길 왼쪽에 있는 사찰을 보고 지은 시)에서 “참새가 높은 회오리바람을 미쳐 쫓아가지 못하는데, 매와 송골매는 아래를 쳐다보며 의기양양하네. 스스로 이르기를 천리까지 족히 날 수 있다 하는데, 황혼은 여전히 지는데 나는 이 몸을 들뜬에 의지하고 있구나.(雀兒未逐颺風高, 下視鷹鷂意氣豪. 自謂能生千里足, 黃昏依舊委蓬蒿.)”라고 한 대목은 그의 낙방에 따른 좌절감과 분감을 세상에 드러낸 부분이다. 세상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지녔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를 표출한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中唐의 재야문인들이 지녔던 정신세계를 구명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하겠다. 몇 수의 작품을 통해 于武陵이 현실에 대해 소회를 드러낸 부분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다음 예거하는 작품은 于武陵이 京洛에서 進士에 응시하였던 시절에 쓴 시로 세상 명리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나타낸 기록이 된다.

「東門路」(동문로)

東門車馬路 거마가 다니는 동문로  
此路在浮沈 이 길에는 세속의 부침이 서려있다  
白日若不落 한낮의 해가지지 않는다면  
紅塵應更深 인간 세상의 번성함은 더욱 깊어지리라  
從來名利地 예로부터 이곳은 각종 명리를 쫓는 장소라  
皆起是非心 모두에게 명리를 쫓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所以青青草 푸릇푸릇한 풀이라고 하는 것은  
年年生漢陰 해마다 한수의 남쪽에서 피어나는 것을

進士科를 준비하던 시절의 의식을 반영한 듯 ‘浮沈’, ‘紅塵’ 등 세속의 명리와 연관된 시어를 활용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sup>10)</sup> 東門路를 바라보면서 길에 해가 뜨고 지는 ‘浮沈’ 현상을 ‘관직에 들어 부침을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고 ‘거마가 지나간 뒤의 먼지’를 일컫는 ‘紅塵’을 보며 ‘세속의 영리를 쫓는 현상’을 연상한 것이 시인의 출사의지와 맞물려 오묘한 감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가 長安 시장에서 소나무를 팔고 있는 이에게 준 다음 시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 한탄하는 자신의 심정을 대변한다.

10) 『史記』『袁盎·晁錯列傳』에서 袁盎이 세속의 부침을 쫓아 다닌 일을 기술한 “원앙이 병으로 휴가를 받아 집에 거하면서 길거리의 생활과 부침을 같이 하여 투계를 쫓아 다니는 것을 하였다.(袁盎病免居家, 與閭里浮沈, 相隨行鬪鷄走狗.)”라고 한 구절을 인용하였고, ‘紅塵’은 원래 거마가 지나간 뒤의 먼지를 일컫는 말이지만 漢代 班固가 「兩都賦」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온갖 먼지가 사방에서 모여드니 마치 구름과 연기가 서로 이어진 듯 하였다.(闕城溢郭, 旁流百塵, 紅塵四合, 烟雲相連.)”라고 한 표현과 연관하여 세속의 변화함이나 명리를 쫓는 길로 비유하고 있다.

「贈賣松人」(소나무를 팔고 있는 이에게)  
 入市雖求利 市場에서는 비록 이익을 추구하지만  
 憐君意獨眞 안타깝게도 그대만은 홀로 참된 뜻을 지니고 있네  
 欲將寒澗樹 차가운 시냇가의 나무(寒澗樹)라는 소나무를  
 賣與翠樓人 부자집 여인네가 사는 곳에 팔려고 하네  
 瘦葉幾經雪 메마른 잎은 그 몇 번이나 눈을 겪었는가  
 淡花應少春 그 옅은 꽃은 필시 봄에 잠깐만 피었을 뿐  
 長安重桃李 장안에 있는 이들 桃李를 좋아하니  
 徒染六街塵 한갓 장안 六條大街의 먼지에 의해 오염될 뿐이라

화사한 빛깔과 농윌한 향기를 지닌 桃李와 같은 수종이 환영을 받는<sup>11)</sup> 長安 꽃나무 시장에서 ‘메마른 잎(瘦葉)’과 ‘옅은 꽃(淡花)’을 지닌 소나무를 파는 이가 있다. 세속의 인기를 아는 듯 모르는 듯 ‘寒澗樹’라는 별칭에 어울리는 소나무를 내놓았는데 부너자 같이 농염한 색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숭고한 인품을 지닌 소나무의 내면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 부분에서는 ‘寒澗’과 ‘翠樓’ 표현을 통해 강렬한 대조를 시도하였다. 소나무와 같이 깊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사회가 아닌 것이다. 소나무를 파는 이는 봄의 ‘옅은 꽃(淡花)’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靑松)’를 팔려는 것인데 아쉽게도 이 뜻은 六條大街의 먼지에 의해 오염될 뿐 주목받지 못한다. 長安에 와서 벼슬을 구해보지만 세도가들은 桃李와 같이 시속을 따르는 사람을 좋아할 뿐 자신과 같이 깊은 심지를 지닌 인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시속을 풍자한 작품이다.

갑 속의 거문고를 노래한 다음 작품 역시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지 못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匣中琴」(갑 속의 거문고)  
 世人無正心 세상 사람들 중에 올바른 마음 지닌 이 없어

11) 長安에는 부호들이 많은데다 桃李나 牡丹 같은 화사한 꽃을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白居易는 「買花」에서 “깊은 색을 띤 한 무더기 꽃, 열 가구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시를 짓는다네.(一叢深色花, 十戶中人賦)”라고 읊은 바 있다.

蟲網匣中琴 갑 속에 있는 거문고에 벌레가 집을 짓는 구나  
 何以經時廢 어찌하여 세월을 겪으면서도 피폐할 뿐  
 非爲娛耳音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나  
 獨令高韻在 홀로 고아한 운을 지니게 하였으니  
 誰感隙塵深 그 누가 먼지 가득한 것을 느끼랴  
 應是南風曲 응당 이 南風曲이  
 聲聲不啞兮 소리마다 오늘과 맞지 않아서 이리

자신의 본분에 맞는 역할을 못하는 악기가 벌레 먹어 피폐해져 가듯 세상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도 점차 피폐해져 감을 은유한 작품이다. '匣中琴'이 南風曲을 연주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듯<sup>12)</sup> 자신도 능력을 발휘하여 백성을 위해 영향력을 펼치고 싶지만 그저 고아한 뜻만 간직할 뿐 알아주는 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한탄한 시라 하겠다.

長安에서 벼슬을 구하려던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于武陵은 邊塞의 여러 軍幕을 다니며 벼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sup>13)</sup> 그가 '進士(書)'와 '邊塞(劍)'를 통해 세상에 뜻을 펼치고자 했던 시기는 도합 십여 년에 달했지만 40세에 이르도록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작품은 그가 변새를 전전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서정을 풀어서 쓴 작품이다.

#### 「書情」(책을 대하는 감정)

- 12) 南風曲 구절은 『孔子家語·辯樂』 편에서 “남풍의 따듯함이며, 우리 백성들의 성념을 풀어 줄 수 있으며, 남풍의 때에 맞는 적절함이며, 우리 백성들의 재물을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다.(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라고 하여 백성에게 이익을 주는 南風의 혜택을 언급한 것을 참조한 것이다.
- 13) 于武陵이 최초로 入幕한 지역은 '隴山'으로 추정된다. 그가 「秋夜達蕭關」에서 “작년에 변새객이 되어 오늘 밤 소관에서 유숙하네.(去年爲塞客, 今夜宿蕭關.)”라고 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蕭關'은 현재 今甘肅 固原 경내에 있으며 唐代에는 原州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古代의 '四關' 중 한 지역으로 秦漢 이후로 중국 왕조와 북방민족 간에 쟁탈전이 빈번했던 지역이며 唐代에는 吐蕃과 장기대치하던 지역이었다. 于武陵은 이곳에서 「王將軍宅夜聽歌」시를 지었고 다른 변새지에서 「書懷」, 「歲暮還家」, 「還家」, 「書情」 등의 작품을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負郭有田在 성곽에서 가까운 곳에 밭이 있는데  
 年年長廢耕 해마다 오랫동안 갈지 않고 피폐한 채 있네  
 欲磨秋鏡淨 생각 같아선 거울을 갈아 맑은 모습 비추고 싶으나  
 恐見白頭生 흰머리 생겨난 것 보일까 두려울 뿐이라  
 未作一句別 일찍이 열흘 동안도 집을 떠나와 본 적 없었는데  
 已過千里程 벌써 천리도 넘는 여정 길에 와 있다  
 不知書與劍 몰랐구나 책과 검으로  
 十載兩無成 십 년 동안 두 가지 모두 이룬 것이 없게 될 줄

‘長廢耕’, ‘白頭生’ 등의 구절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千里程’의 표현에서 고향을 떠나온 이의 아련한 삶을 느낄 수 있다. 오랫동안 득의하지 못한 채 타향을 떠도는 서생의 아득한 감정을 절절히 담아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미연에서 “책과 검밖에 모르고 지냈다(不知書與劍)”라고 한 구절은 『唐才子傳』 등에서 于武陵에 대하여 “책과 검에 의지하여 떠돌았으니, 강호를 유랑하였으며, 북쪽으로는 변새에 닿았고, 남쪽으로는 瀟湘에 미쳤다.(書劍飄零, 浪迹江湖, 北至塞上, 南極瀟湘.)”라는 평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말구에서 ‘十載’라는 표현을 통해 이 십년 동안 급제하지 못한 채 전국을 유랑하는 신세를 표현한 부분도 작자가 지닌 오랜 절망감과 허무한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이 된다.

于武陵이 자신의 소회를 밝힌 부분은 물론 벼슬을 추구하고 사도를 꿈꾸는 시기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서 쓰임 받지 못함 못지않게 나그네 된 신세로 객지를 떠돌 때 지은 작품 역시 그의 고적한 심리를 반영한 작품이 된다. 그가 巴蜀·荊湘·吳越 등지를 다니던 중에 지은 작품을 살펴보자.

「秋夕聞雁」(가을 밤 기러기 소리를 듣다)  
 星漢欲沈盡 은하수의 별도 다 지러 하는데  
 誰家砧未休 그 누구의 집에서 다듬이 소리 멈추지 않나  
 忽聞涼雁至 홀연히 차가운 기러기 소리 들려오니  
 如報杜陵秋 마치 고향 杜陵의 가을을 알리는 듯  
 千樹又黃葉 온갖 나무마다 누런 잎이 다시 생겨났는데

幾人新白頭 새로이 흰 머리가 난이 그 몇이나 될까  
 洞庭今夜客 오늘 밤 동정호에서 객이 되어 있는 이 몸  
 一半却登舟 잠시 후면 돌아갈 배를 타게 될런지

시문 중에 등장하는 ‘洞庭湖’를 통해 그가 荊湘 지역을 떠돌 때 지은 작품을 알 수 있다. 다듬이 소리, 기러기 울음, 杜陵의 가을 등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黃葉’과 ‘白頭’가 세월의 흐름을 암시한다.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시인은 고향에 대한 강렬한 귀향의식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돌아갈 배(却登舟)’를 타게 될 것이라는 환상까지 갖게 된다. 나그네로 떠돈 이의 외로움의 깊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于武陵이 자신의 소회를 밝힌 작품은 주로 사도에서 실의한 감정, 변세지에서의 감상, 시국과 권력자에 대한 불만, 고향에 대한 향수, 타향에서 나그네된 이의 서정 등으로 압축된다. 예거한 시 이외에도 “집 떠난 지 그 몇 날 밤인가, 달은 바라볼수록 쓸쓸해지네. 새로운 녀을 채우듯 달은 차건만, 고향은 점점 아득해지누나.(離家凡幾宵, 一望一寥寥. 新魄又將滿, 故鄉應漸遙.)”(「客中月」), “차가운 길에 해는 멀리 떨어지고, 눈길은 성을 향해 펼쳐져 있네. 떠도는 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해마다 부질없이 기러기만 날아드나니.(寒阡隨日遠, 雪路向城開. 遊子久無信, 年年空雁來.)”(「寄北客」)라고 하여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를, “장안을 떠난 지 오래, 아는 이들은 벌써 드물어졌다. 외로운 구름과 함께 머무는 생활 좋아라, 외로운 구름은 시비를 가리지 않으리니.(自離京國久, 應已故人稀. 好與孤雲住, 孤雲無是非.)”(「書懷」)라고 하여 타지에서 나그네된 이의 서정을 드러냈는데 이 역시 그의 심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일생을 득의하지 못한 채 타향을 떠도는 신세지감을 펼친 것이니 于武陵의 시가에서 “비감어린 우수”는 그의 창작의지를 가장 크게 반영한 감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2. 순전한 교유관계의 추구

于武陵의 시가를 보면 「宿友生林居因懷賈區」一首에 나온 ‘賈區’를 비롯하여 ‘董明府’, ‘王隱者’, ‘王將軍’ 등 성명을 밝힌 인물도 나오지만 ‘友人’, ‘僧’, ‘道者’, ‘北客’, ‘故人’, ‘城郭知己’, ‘舟中者’ 등 무명의 지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함을 발견할 수 있다. 于武陵이 교유하였던 이가 누구였는지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지만<sup>14)</sup> 시제와 내용을 통해 그가 교유한 인물들은 대체로 재야에 있는 무명 인사들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가의 내용과 시어가 활용된 면모를 통해 于武陵이 지인들과 시교할 때 지은 시는 담백한 표현 속에 순전한 우정을 노래하는 것에 마음을 주로 할애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을 술회하거나 자연을 서사할 때 흔히 비감과 울분을 투영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인들을 대할 때면 허정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가 친우관계를 소박한 인간관계로 인식하고 살았으며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교유시를 통해 酬唱을 함에 있어 여타 문인들보다 전고와 수식을 덜 중요하지 생각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순수한 우정의 서사에 마음을 기울인 측면이 강한 것이니 이는 于武陵의 시가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색이라 하겠다. 몇 수의 작품을 통해 于武陵이 지향했던 交友意識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작품은 이별에 임하며 친구에게 술을 권하는 내용인데 짧은 구절이나 호방한 의기가 행간에 그득함을 발견할 수 있다.

「勸酒」(권주)

勸君金屈卮 그대에게 이 금 술잔 권하노니

14) 張固也是「中晚唐詩人于武陵考」,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제48권 5기, 2008. 9.) 논문에서 于武陵이 교유한 인물 중 ‘賈區’가 賈島의 동생인 詩僧 ‘無可’이며 于武陵은 賈島와도 교유하였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筆者十多年前已經懷疑賈區就是著名的詩僧無可, 但沒有交代理由, 這裡作點補充考証. 無可稱賈島爲從兄, 自然亦姓賈至于他的俗名, 古書中沒有明確記載, 今人多說已不可詳考. 但從貫休詩可以看出, 他曾經讀過賈區的詩集, 并認爲賈區的詩歌成就和風格、社會地位和經歷, 俱與賈島不相上下, 這與詩僧無可的身份完全符合. 于武陵還有一首「友人南游不回因寄」云:“鄴杜月頻滿, 瀟湘人不歸.” 當爲其本人離家南游以前的作品, 這個友人疑亦無可. 于武陵既然與無可交游, 就有可能同時結識賈島, 這可以從他的詩中找到一條証据. …(後略)…”

滿酌不須辭 잔이 넘친다 사양 말게나  
 花發多風雨 꽃이 필 때에 비바람이 많은 법이듯  
 人生足別離 인생살이에는 이별도 많으니

于武陵의 작품이 비애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친구에게 술을 권하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에서는 호방한 기운을 투영하자 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에서 于武陵은 “인생사에서 좋은 일에는 의례 방해되는 일이 생겨나는 법이니 우리의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于武陵 자신도 벼슬길에 여의치 않고 세상살이에서 부침도 많이 겪었으나 어느 순간이고 꽃피는 순간을 기대하고 살아간다. 이처럼 인생이 서글프고 세상살이가 불만스럽거나 이별하는 일도 많을 수 있지만 시인은 금 술잔<sup>15)</sup>을 권하는 것으로 자신과 친구의 마음을 스스로 다잡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은 于武陵이 百牢關(현재 陝西省 沔縣 서남쪽 위치)을 지나가면서 배 안에서 만난 이에게 준 작품인데 세상의 명리를 멀리한 이의 낙을 설파하고 있다.

「過百牢關貽舟中者」(百牢關을 지나면서 배에 있는 이에게 주다)  
 蜀國少平地 촉 땅은 평지가 적은 곳  
 方思京洛間 바야흐로 京洛 간에 있을 적 생각하네  
 遠爲千里客 천 리 먼 곳 객이 되어  
 來度百牢關 이 곳 百牢關을 지나게 되었네  
 帆影清江水 돛 그림자는 맑은 강물에 드리우고  
 鈴聲碧草山 방울 소리는 푸른 풀 그득한 산에 울린다  
 不因名與利 명리를 인함이 아니면  
 爾我各應閑 그대와 나는 각자 한가로운 마음일지니

수구에서 자신이 향하는 蜀 땅은 산세가 험한 곳이라 하며 ‘京洛’을 추억하

15) ‘金屈卮’는 六朝 宋나라 왕실에서 즐겨 쓰던 손잡이가 굽은 술잔을 가리킨다. 李賀의 시 「浩歌行」에서 “箏 타는 미녀는 나에게 金屈卮 권하는데, 신령한 피도 아직 굳지 않았거든 이 내 몸은 누구인가?(箏人勸我金屈卮, 神血未凝身問誰.)”라고 한 구절에서도 이 금술잔의 의상을 화려하고 호방한 의미로 활용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였는데 이는 자신이 향하게 될 蜀 땅처럼 험난하게 펼쳐질 인생의 부침을 예감하는 부분이 된다. 이러한 여로를 향하면서 시인은 오히려 ‘清江水’<sup>16)</sup>와 ‘碧草山’을 떠올린다. 명리를 떠나 생각한다면 자신과 친구 모두 한가로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于武陵이 친구에게 주는 시는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 비애감을 발하는 것과 달리 평안을 추구하는 내용을 부각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 친구에게 부친 작을 보면 于武陵이 헤어짐과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어 역시 명리와 거리가 먼 순수한 우정을 중시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寄友人」(친구에게 부침)

長安清渭東 장안의 동쪽에는 渭河가 맑게 흐르는데  
遊子迹重重 집 떠나 떠도는 이는 무거운 마음이다  
此去紅塵路 이 곳 변화한 세속의 길을 떠나가면  
難尋君馬蹤 그대가 타고 간 말의 종적일랑 찾기 어려워라  
昔時輕一別 예전에는 한 번 이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였는데  
漸老貴相逢 늙어갈수록 다시 만날 일 점차 귀해진다  
應戀嵩陽住 송양에 살던 때 응당 그리워할지니  
嵩陽饒古松 송양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풍부했었지

시가의 내용을 통해 일찍이 嵩陽(현재 河南省 登封縣 북쪽)에서 함께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될 친구에게 주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기약 없이 떠나는 친구에게 전송의 아쉬움을 전함에 있어 이별을 ‘가벼운(輕)’ 것으로 표현하고 만남을 ‘귀하게(貴)’ 표현하는 글자를 활용하였다.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헤어짐과 만남의 상대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느껴진다. 미연에서 시인은 두 사람이 함께 기거하던 곳의 소나무를 들어 공통의 향수를 언급하며 서

16) ‘清江’과 ‘碧草山’은 시인의 마음을 반영한 맑은 강과 푸른 산의 이미지를 나타낸 부분이다. 한편 이 ‘清江’에 대하여 湖北省 서남부 장강 중류에 있는 지류로 옛날에 ‘夷水’라고 불리었던 강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있다.(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제7권 172쪽 참조)

정을 배가시키고자 하였다. 헤어짐에 있어 자연물을 들어 감정을 순화시키는 수법을 발휘한 것이 시선을 끄는 것이다.

于武陵이 숲속에서 머물며 친구 賈區<sup>17)</sup>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다음 작품을 보자.

「宿友生林居因懷賈區」(숲속 친구의 거처에서 자면서 賈區를 그리워하다)  
 繞屋樹森森 집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 울창한데  
 多棲紫閣禽 이 자각봉에 깃드는 새들 실로 많아라  
 暫過當永夜 이 긴 밤에 이곳에서 잠시 머무노라니  
 微得話前心 정경을 앞에 두고도 내 마음 할 말을 잃었네  
 入楚行應遠 楚 땅에 들어가 있으면 응당 먼 길이요  
 經湘恨必深 湘水を 지나게 되면 恨도 깊어지리니  
 那堪對寒燭 차가운 촛불을 어찌 대할 수 있으려나  
 更賦別離吟 다시금 이별시를 읊조려보나니

이 시는 于武陵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숲속 거처에서 지은 작품으로 추정된다.<sup>18)</sup> 于武陵은 잠시 친구의 숙소에서 투숙하고 있는데 賈區는 荊湘지역으로 출타하여 부재중이다. 이에 于武陵은 차가운 촛불을 마주하며

17) 이 작품에 등장하는 ‘賈區’에 대하여 張固也는 「中晚唐詩人于武陵考」,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제48권 5기, 2008. 9.)에서 “無可青年時代曾有游越的經歷, 從關中至越, 正須‘入楚’、‘經湘’. 據此推測賈區即無可, 于武陵在其出游不久, 賦詩怀念旅途中的友人, 應該比較可信. 另据此詩, 賈區即無可青年出游前就隱居白閣峰, 歸來後直至大和年間仍爲‘白閣僧’, 這可以使我們加深對貫休詩中‘白閣久圍爐’一句的理解. 此外, 于武陵還有一首‘友人南游不回因寄’, 云: ‘鄂杜月頻滿, 瀟湘人不歸.’(『全唐詩』卷725) 當爲其本人離家南游以前的作品, 這個友人疑亦無可.”라 하여 ‘賈區’가 ‘無可’임을 고증하고 있으며 「寄友人」一首를 통해 賈區와 시문을 주고받았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어 참고가 된다.

18) 이 시를 이해하려면 우선 于武陵이 京兆府 鄠縣人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가에 등장하는 ‘紫閣峰’은 鄠縣 東南쪽 30리에 있는 산봉우리로서 于武陵의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紫閣峰’과 ‘白閣峰’은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시어에서 ‘紫閣峰’에 깃드는 새를 바라보면서 읊은 대목을 생각해 볼 때 于武陵이 투숙한 ‘友生林居’는 白閣峯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張固也, 「中晚唐詩人于武陵考」,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제48권 5기, 2008. 9.): “于武陵此詩亦由白閣而及于紫閣, 而意境更爲含蓄. 如果宿于紫閣, 這句詩就索然寡味了.” 해설 참조)

먼 길에서 湘水를 지나는 친구의 恨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기실 于武陵 본인 산중에서 느끼는 적막감과 이별로 인한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으로도 볼 수 있다. 고요한 밤에 멀리 떨어진 친구 賈區를 생각하는 순연한 마음을 차분한 어조로 그려낸 작품이라 하겠다.

몇 수의 예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于武陵이 지기들과 주고받은 시가들은 내용과 표현상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 먼저 눈에 띄는 점은 于武陵은 권문세가나 세력가들과의 교유를 논한 작품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在野人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또한 타인과의 수창을 목적으로 하는 교유시는 특성상 조탁이나 수식을 통해 문재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는데 于武陵의 작품은 오히려 白描적인 표현을 선호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재를 드러내기보다 순수한 우정을 노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于武陵은 교유시를 창작함에 있어 자신의 비감을 감춘 채 담백한 풍격을 지향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특색이다. 그의 시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신의 비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타인과의 교유를 위해 창작한 시에 있어서는 청아한 시심이나 순연한 우정을 서사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3. 비감 어린 산수 경물의 서사

于武陵은 그의 이름처럼 자연산수에 대한 애호의식이 강렬한 시인이었다. 그가 京洛 간에서 벼슬을 구하거나 邊塞를 유랑하던 시절에는 현실의식과 개인의 소회를 이입한 시가를 주로 많이 썼지만 이 시기에도 산수자연에 대한 순수한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음이 작품을 통해 발견된다. 이어 長安求仕期, 邊塞流浪期 이후로 巴蜀·荆湘·吳越 등지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그의 시가창작 제3기에 해당한다. 巴蜀지방에서 「斜谷道」, 「游中梁山」, 「褒中即事」, 「过百牢关贻舟中者」 등의 작품을 지었고, 이어 夔州, 歸州, 三峽, 荆湘 등을 거쳐 吳越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으니<sup>19)</sup> 그의 생애 중 가

장 많은 작품을 남긴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객지를 떠도는 이의 회한과 향수의식을 많이 노래하였지만 ‘蕭散’하고 ‘淡寂’한 필치로 산수자연을 노래한 시가를 많이 창작한 것이 특색이다. 于武陵은 賈島, 無可 등과 교류를 하였지만 특정 유파와 연관을 맺은 시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통해 中唐시기 재야에서 창작된 자연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中唐 자연시의 발전에 있어 于武陵도 창작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고 말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于武陵의 작품 중 한아한 필치로 산수경물을 묘사한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中唐의 시풍<sup>20)</sup>과 연관하여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몇 수의 작품을 예거하여봄으로써 그가 산수를 바라본 시각과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于武陵이 湘水를 지나면서 밤 풍경과 어우러진 나그네의 수심을 노래한 다음 작품을 살펴본다.

「夜泊湘江」(밤에 湘江에 정박하여)  
北風吹楚樹 북풍이 楚 땅의 나무에 불어대니  
此地獨先秋 이 땅에는 유독 가을이 먼저 드는 듯  
何事屈原恨 어이하여 屈原의 한은

19) 于武陵이 荆湘·吳越 지역을 다니면서 지은 시로는 「客中」, 「秋夕聞雁」, 「夜泊湘江」, 「南游有感」, 「送客東歸」, 「詠蟬」, 「天南懷故人」, 「客中覽鏡」, 「望月」, 「早春山行」, 「西歸」, 「江樓春望」, 「南游」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于武陵이 蜀에 있을 때 나이가 대략 40세였는데 이후 吳越 지역에서 지은 「早春山行」에서 “타향에서 오랫동안 객이 되어 있으니, 들녘의 새는 언제나 돌아갈 생각 뿐. 십 년 동안 지나간 세월 마치 꿈만 같아, 내 본래의 맑은 마음은 이미 어그러졌네.(異鄉那久客, 野鳥尙思歸. 十載過如夢, 素心應已違)”라고 하여 ‘十載’라는 표현을 하였으니 그가 남방을 전전하던 시기는 대략 50세 정도에 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中唐의 자연시는 천연과 순진을 추구하며 ‘簡遠’, ‘閑淡’, ‘清雅’한 풍격을 지향하던 盛唐의 자연시와 달리 “힘써 수식을 생각해내는(苦思修飾)” 단련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창작된 흔적이 강하다. 이는 唐 王朝 중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상실되고 자신의 濟世意志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 현실 등 中唐의 각종 사회적 요인이나 심리적 원인과 연관이 있다. 불안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문인들은 더욱 산수를 찾게 되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고뇌와 상실감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심리에서 창작된 자연시는 ‘悲壯’, ‘苦澁’, ‘蕭散’, ‘深僻’ 등의 풍격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于武陵의 자연시 작품들 역시 이러한 中唐의 풍조를 반영한 면모가 강하다.

不隨湘水流 湘水따라 흘러가버리지 못하는가  
 涼天生片月 차가운 하늘엔 조각달이 떠 있는데  
 竟夕伴孤舟 저녁이 되니 외로운 배만 나와 함께 하네  
 一作南行客 남방에 길을 나선 객이 된 후  
 無成空白頭 흰머리가 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湘江’, ‘楚樹’ 등의 지명을 통해 타향에서 유랑하는 신세임을 나타냈고 ‘屈原恨’, ‘孤舟’ 등의 시어를 통해 작자의 마음이 회한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음을 표현했다. 타향에서 나그네 된 시인은 屈原이 느꼈던 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일신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구에서 ‘無成空白頭’이라 하여 허무하게 세월을 지나보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를 총괄하고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淸雅하지 않음을 드러낸 작품이라 하겠다.

이처럼 자연을 대하는 于武陵의 마음은 고독감과 회한으로 얼룩져 있었음을 여러 시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예거하는 시가 역시 하늘에 외로이 떠 있는 구름을 주목하여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작품이다.

「孤雲」(외로운 구름)

南北各萬里 남북으로 각각 만 리 길  
 有雲心更閑 구름이 있으니 마음 더욱 한가롭다  
 因風離海上 바람으로 인해 바다 위로 떨어져 갔다가  
 伴月到人間 달과 함께 사람 있는 곳으로 왔다  
 洛浦少高樹 洛水가 포구에는 높은 나무 드물고  
 長安無舊山 장안의 옛 산들 없어졌다  
 裴回不可駐 배회하면서 머물 곳 없으니  
 漠漠又空還 그저 막막하여 다시금 헛되이 돌아올 뿐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 구름을 보며 邊塞 유랑에 이어 巴蜀·荊湘·吳越 등 남북으로 떠돌았던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게 된다. 구름에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여 소박한 위안을 얻게 된 것을 ‘心更閑’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은 구름

이 바람에 날리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처지니 구름이라는 자연물은 자신의 유량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담백한 시어를 활용하였으나 작자의 우수로 인해 그 속에 담긴 의경이 ‘空寂’하고 ‘蕭散’한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다음 작품은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시가 전반에 이별과 연계된 한이 그득함을 발견할 수 있다.

「遠水」(멀리 흘러가는 물)

悔作望南浦 남포를 바라본 것 후회하게 되나니  
望中生遠愁 바라보는 중에 먼 근심 일기 때문이라  
因知人易老 이로부터 알겠네 사람이 쉽게 늙는 것은  
爲有水東流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어서 때문  
欲附故鄉信 고향에 편지를 부치고 싶으나  
不逢歸客舟 돌아가는 객이 탄 배를 만나지 못했네  
萋萋兩岸草 양 편 언덕에 풀은 그윽하게 피어있는데  
又度一年秋 또 다시 한 해의 가을이 지나가누나

이별을 상징하는 ‘南浦’라는 지명이 말해주듯<sup>21)</sup> 고향을 떠나온 신세로 물을 바라보던 시인의 마음에는 어느새 우수가 가득 고이게 된다. 흘러가는 물에서 흐르는 세월을 느끼게 되고 나그네 된 이의 시름을 투영하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깨닫게 된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근심과 회한을 한 아름 안게 되는 것이다. 강물과 들풀과 같은 자연물, 가을과 흘러감 같은 의식들이 우수에 빠진 시인의 마음을 총체적으로 대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객지에서 바라보는 구름과 강으로 인해 시름을 느끼던 시인은 산을 바라보

21) 中國 고대시가에서 ‘南浦’는 물가에서 송별하는 장소 혹은 이별의 의미로 많이 묘사된다. 屈原「九歌·河伯」의 “그대와 손을 잡고 동쪽으로 향하고, 미인을 남쪽으로 송별하네.(與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라고 한 구절과 江淹「別賦」의 “봄풀은 푸른색을 띠고 있고 봄물은 녹색 물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니 그 마음 아픔이 어떠한지.(春草碧色, 春水綠波, 送君南浦, 傷如之何.)” 등의 시구에서 南浦가 이별의 의미로 활용된典故임을 발견할 수 있다.

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산을 찾아 한적한 마음을 돋우고자 했던 마음을 담은 다음 작품을 살펴본다.

「尋山」(산을 찾아서)  
 到此絕車輪 이 곳에 오니 거마의 바퀴자국 끊어져 있고  
 萋萋草樹春 봄 되어 초목과 나무 무성하구나  
 青山如有利 청산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듯하고  
 白石亦成塵 흰 돌 역시 먼지로 변해 있네  
 水闊應無路 물이 광활히 펼쳐져 있으니 길이 없을 것이고  
 松深不見人 소나무 숲 깊어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如知巢與許 만약 巢父와 許由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千載迹猶新 천 년 세월의 흔적도 오히려 새롭게 느껴질 텐데

‘車輪’의 흔적이 사라진 자연 속에서 어느덧 인간의 번뇌를 잊게 된다. 함연에서 “청산이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한 것과 白石이 ‘먼지로 변한다(成塵)’라고 한 것은 자연 속에서 시름이 사라지게 된 작자의 마음을 은유한 표현이다. 이 속에서 눈앞에 인적은 사라졌고 巢父와 許由의 이치<sup>22)</sup>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세속의 욕심이나 비애감을 극복하고 자연을 새롭게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살펴본 몇 수의 작품 외에도 于武陵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남다른 서정을 느낀 부분은 여러 구절에서 발견된다. “높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몇 번이나 옛 숲을 생각했던가. 원숭이와 새들도 저처럼 다정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오로지 나 혼자만이 어느 마음을 품으랴.(因此見喬木, 幾回思舊林. 殷勤猿與

22) “巢父와 許由의 고사”는 “堯 임금이 許由에게 보낸 사자가 國相職을 맡아, 宰相들과 백성들을 다스려달라고 초대하는 부탁을 더러운 소리로 여기고 許由가 潁川 냇물에 귀를 씻으니 巢父는 이런 더러워진 물을 우리 소도 마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갔다”는 고사를 말한다. 晉 皇甫謐의 『高士傳』에 기록된 “堯讓天下于 許由, 許由不受而逃去, 于是遁耕于中岳, 潁水之陽, 箕山之下. 堯又召爲九州長, 由不欲聞也, 洗耳于潁水濱. 時其友巢父牽犢欲飲之, 見由洗耳, 問其故. 對曰: ‘堯欲召我爲九州長, 惡聞其聲, 是故洗耳.’ 巢父曰: ‘子若處高岸深谷, 誰能見之? 子故浮游, 欲聞求其名聲, 汚吾犢口.’ 牽犢上流飲之.”을 참고할 수 있다.

鳥, 惟我獨何心.)”(「游中梁山」), “한밤중에 서리가 언덕에 내리고, 북풍이 억새 꽃에 붙어대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 깨고 스스로 놀라니, 저 하늘 끝까지 생각이 이를 수는 없구나.(半夜下霜岸, 北風吹荻花. 自驚歸夢斷, 不得到天涯.)”(「宿江口」) 등의 구절을 보면 于武陵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귀향의식에 따른 고독한 정서에 빠져들고 있으며, “돌은 차갑고 꽃은 늦게까지 피어 있는데, 바람이 많으니 낙엽도 빈번하게 떨어진다. 초부는 응당 이러한 이치를 모르지 않겠지, 세월이 지나면 잘리어 뿔감으로 변한다는 것을.(石冷花開晚, 風多落亦頻. 樵夫應不識, 歲久伐爲薪.)”(「山上樹」)라고 한 구절을 보면 현재 보이는 자연물 그 너머에 담긴 쓸쓸한 쇠락을 주목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于武陵이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은 대부분 소산한 비애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개인의 이력과 中唐의 사회적 현실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생 재야에서 떠돌던 于武陵에게 비친 자연과 그가 창작한 자연시는 청신하고 한아한 전통적 자연시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임을 의미한다. 즉 관도의 불운과 유람의 신세를 경험한 于武陵이었기에 한아하고 명랑한 풍격과는 거리가 있는 “中唐의 특색을 반영한 變調의 자연시 작품”을 창작하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sup>23)</sup>

### III. 결론

于武陵은 中唐의 재야시인으로 유명시인으로 거론되는 시인은 아니지만 개성적인 내면을 투영하여 창작을 가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문인이다. 그는 전통적인 자연시의 시체인 五言詩를 주로 선호하였는데 전체 작품 중 많은 시가를 개인의 내면을 토로하거나 산수자연을 읊는데 할애한 바 있다.

23) 王孟으로 대표되는 盛唐의 자연시가 객관적 경을 위주로 하는 순연한 서경시를 추구했다면, 于武陵의 작품 같은 中唐의 자연시는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 감정을 바탕으로 한 ‘정과 경을 융합하는(情景融合)’ 자연 묘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도하며 일종의 ‘變調’를 창출해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가의 풍격을 보면 여타 中唐의 시가처럼 蕭散하고 空寂한 필치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을 노래하거나 우정을 나눈 작품의 경우 맑고 한아한 뜻을 지닌 글자를 활용하여 시가의 청정미를 더하거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주력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준일하면서도 담백한 서정을 추구한 면모는 역대 시가에서 그를 “清奇雅正한 풍격을 지향한 시인”으로 평가한 것과는 부합되는 점이며 비록 당대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中唐의 시가창작에 있어 개성적인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시인이라 하겠다.

于武陵의 시가는 무엇보다 담백하고 공적인 풍격을 지향하였다는 점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의 이름처럼 ‘武陵’의 경지를 추구하거나 한아한 시어를 구사하고자 한 것은 中唐의 시대적 환경에서 자유롭고자한 노력의 흔적이요, 순수한 우정을 노래하며 맑은 시심을 돋우고자 한 시도는 개인의 소회를 뛰어넘는 허정한 마음의 전파였다. 특히 그의 시가는 盛唐과 비교되는 中唐의 풍격 즉 비감을 함유한 채 소산한 우수를 담아낸 풍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자연시는 만년기에 지어진 그의 여러 시가를 대변하는 작품인데 ‘清幽’, ‘深遠’, ‘孤寂’, ‘蕭散’ 등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풍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中唐의 창작기교를 잘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 그의 시가 내면의 우수를 투영한 孤寂하고 淒然한 정서의 구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또한 의미한다. 于武陵이 현실적 한계나 개인의 원망과 욕망 등을 크게 벗어난 초월한 경지에서 시가를 창작하지는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于武陵 역시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인의 고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中唐의 문인이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79.
- 辛文房, 『唐才子傳』,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8.
- 傅璇琮, 『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0. 2.
- 許 總, 『唐詩史』,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5. 3.
-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1.
-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5. 5.
-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 譚 蔚, 『中國古代山水田園詩賞析』,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6. 11.
- 김달진, 『唐詩全書』, 민음사, 1987.
- 張固也, 「中晚唐詩人于武陵考」,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제48권 5기, 2008. 9.
- 李 新, 「近十年中唐詩歌流派研究綜述」, 廊坊師範學院學報, 2006. 6. 제2기.
- 孟二冬, 「論中唐詩人審美心態與詩歌意境的變化」, 文史哲, 1991. 5.
- 李旦初, 「中國古代文學流派理論發展梗概」,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9. 2.
- 줄 고, 「盛唐과 中唐 自然詩의 風格 비교」, 서울: 중어중문학 제26집, 2000. 6.

## Abstract

### A Study on the *Yu-Wuling's* poetry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on the aspects of the *Yu-Wuling*(于武陵)'s poetry. *Yu-Wuling* \*\*\*one of the poets of Middle Tang Dynasty. There are a few articles on *Yu-Wuling's* poems by now, but his poems have important content which can show distinct feature and style of Middle Tang Dynasty. The aspects of *Yu-Wuling's* poetry can be summarized as that :

The first, *Yu-Wuling's* poetry basically contained the sense of sorrow about social aspect of Middle Tang Dynasty and his own life story. In many part of his poem, he expressed his feelings of sadness, and the feeling make his poem melancholy style. There's a pathos in his poems which he never lets slide into sentimentality.

The second, *Yu-Wuling* have expressed rich emotion about his friendship by using forthright vocabulary in his poem. That also means he have the intense friendship and aspirations toward people. Forthright vocabulary can provide truthful and emotional spray, so he can pursued more clear and fresh style in his Poetry.

The third, *Yu-Wuling's* landscape poetry have clear and fresh style, but in the features of landscape poetry, that also contains inner world in his poetry. Most of poets of Middle Tang Dynasty experienced suffering life which comes from political environment, and *Qian-Qi's* government process was not very successful, so his landscape poetry was also a part of the expression of his life, that the expression can be offered his landscape poetry have some of Quiet, Delicacy, Lonesome styles.

**Key words** : *Yu-Wuling*, landscape poetry, styles of landscape poetry, the poetry of *Yu-Wuling*, Middle Tang Dynasty, sense of beauty, nature

투 고 일 : 2015. 5. 10. / 심 사 일 : 2015. 5. 15.~ 2015. 6. 15. / 게재확정일 : 2015. 6. 16.